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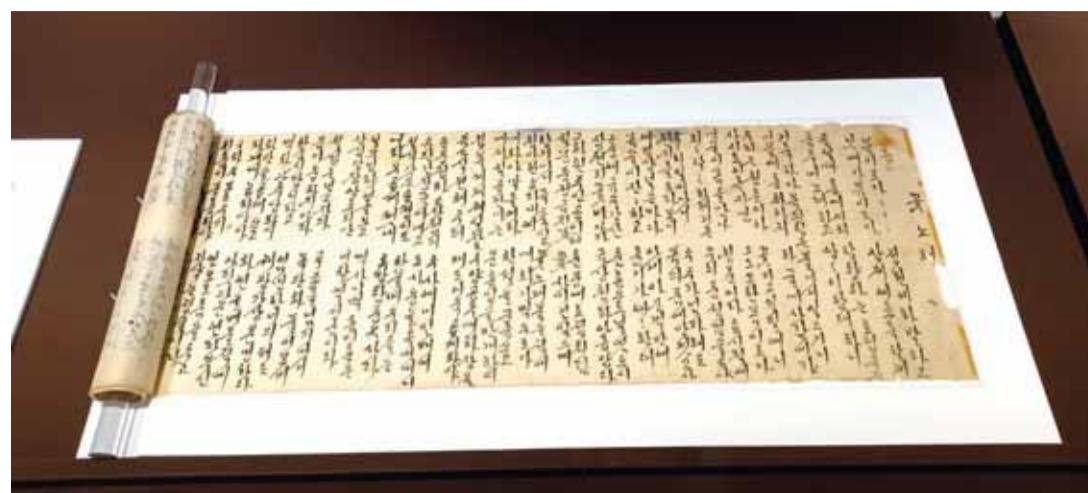
# 안동 가일마을 독립운동가 야향 권오현

야향(野香) 권오현(權五憲, 복야공파, 35세, 1905~1950)의 꽃노래 두루마기 가어머니 김우모(金羽模, 1874~1965)의 “눈물 뿐인 이별가”와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야향(野香) 권오현은 치암공(恥庵公, 權東萬)과 김우모 여사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 1905년 9월 25일 안동 가일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 광복회 고문이었던 할아버지 우암공(友巖公, 권준희·권準熙)과 문중 어르신들이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 또한 광복회가 세우고 독립운동가 권오설(權五高, 1897~1930) 등이 교사로 있는 원흥의숙(元興義塾)에서 수학함으로써 독립사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이렇게 다진 독립사상을 훗날 풍산청년회(1924), 안동청년회(1925), 신간회(1927) 안동지부 연보 위원(1927)으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8차 신간회 총회(1929)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인재를 기르고 투사를 키워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자”는 죽사를 함으로써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안동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투옥되어 열악한 감옥생활로 폐질환을 얻고야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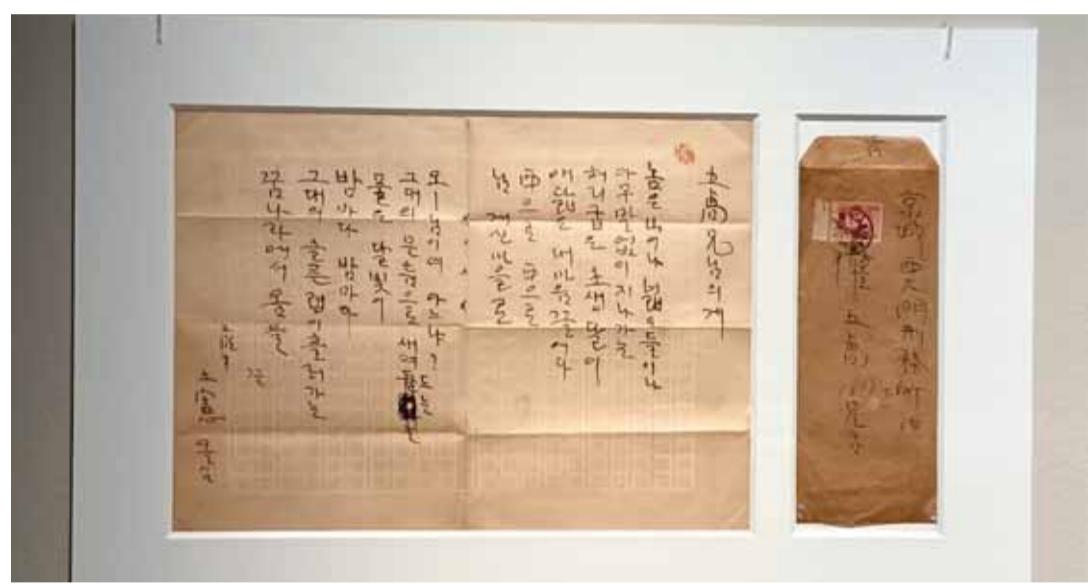
1929년 25세 되던 해 봄 의성 고운사에서 신병으로 요양하면서 고향 가일에 계신 부모님과 그 당시 내방 문학의 주류인 가사를 많이 읽고 외우기를 좋아하던 딸네들 부탁으로 내방가사 “꽃노래”를 짓는다. 1934년 만주로 망명하여 삼원포·심양·장춘·하얼빈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관여하다 광복 후 귀국, 안동지안유지회에 참여한 관계로 대구형무소에서 미결수로 복역, 1950년 7월 30일 6.25동란 중 참화를 당하였다. 이에 2010년 6월 29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야향 권오현의 독립운동 이력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야향 권오현의 꽃노래는 두루마리 가사로 또는 구전되어 오던 귀중한 자료이다. 꽃노래는 가사문학의 형식인 77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 547행 4118자이며, 14가지 꽃을 가지고 그 특성을 인간사에 견주고 특히 일제시대인자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암담한 심정과 항일의식을 꽃에 비유하여 적었다. ‘봄이로다 봄이로다’로 시작하는 이 꽃노래는 조국의 운명을 꽃에 비유한 것으로 동리 등에서 반일사상을 고취시키는 가사로 즐겨 낭송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에는 야향 권오현의 두루마기 꽃노래와 더불어 집안 형님 막난공 권오



꽃노래



야향 권오현이 집안 형님 막난공 권오설에게 보낸 시와 봉투

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할 때 보낸 시(아래)와 봉투가 전시되고 있다. 이 편지는 서대문형무소 측에서 막난공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막난공은 못받았는데 막난공이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한 후 유품을 정리할 때 돌려받았다고 한다.

## 오설五高 兄님의 편지

높은 산이나 넓은 들이나  
아무 말없이 지나가는  
허리굽은 초생달이  
애닮은 내 마음 끌어다

## 西으로 西으로

님 계신 마을로  
× × × ×  
오! 님이여 아느냐?  
그대의 문틈으로 새여드는  
풀은 달빛이  
밤마다 밤마다  
그대의 슬픈 형이 흘러가는  
꿈나라에서 움을 끌

삼종제三從弟 오현五翰 율림  
편집국장 권행완

## 인문학 이야기(5)

권용만 교수(심리학, 철학박사, 38세, 부정공파)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씨’가 존재하여 새싹으로 자라나고, 꽂고 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는데 우리는 그 위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알고서, ‘절’이 든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씨’의 철학과 말(言語)의 미학(美學)은 우리로 하여금 험이 든 사람이 되게 한다.

결론으로 씨(種字)와 말(言語)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운용하여 우리들 삶에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 ‘씨’란 무엇인가?

‘씨’란 종자라는 한자어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씨’가 존재한다. 우리말에 손을 사용하여 무엇을 잘 만들거나 음식 등을 맛있게 하면 ‘아, 그 사람 솜씨가 좋다’고 하고, 옷을 잘 차려 입으면 ‘맵시’가 난다. 아침에 날이 쾌청하면 ‘날씨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쓴맛이 좋으면 ‘그 사람 마음씨가 곱다’하고 글에도 ‘씨’가 있어 ‘글씨를 잘 쓴다’고 하며, 선생님의 ‘성씨는 무엇이냐’고 물으며. ‘불씨’를 살려야 밥을 하지’, ‘봄에 농부는 범씨를 뿐린다’, 꽃의 ‘씨방’이 어디나 ‘고한다’.

이 모든 ‘씨’ 중에 우리가 하루에도 그 수를 해 아릴 수 없이 입 밖으로 내어놓는 ‘말의 씨’를 가장 중(重)하게 생각(哲學)하고 마음 안에 형성된 단어(心理學으로 세 번 반추, 反芻)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씨’ 중에서 ‘말의 씨’처럼 그 영향력이 지대하고 위대한 것이 없다. 사람의 희. 노. 애. 낙. 성공과 패배를 가름하고, 때로는 법정에서의 재판관의 말한 마디가 한 생명의 생사를 결정지으며, 독재자의 말한 마디로 수십 수백 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흘로코스트나,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 지도자의 말한 마디가 역사를 뒤틀리는가 하면, 한 나라의 명운(命運)이 정치지도자의 선부를 말한 마디로 흥망(興亡)과 성쇠(盛衰)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무심히 한 말한마디가 그 가족들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고, 직장에서의 상사의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나 자신이 가족과 타인에게 하는 ‘말의 씨’를 심는 일, 즉 말하는 행위, ‘언어(言語)’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표현을 하거나 ‘글의 씨’인 문자(文字)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즉 ‘의’ 사의 전달방법 ‘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 자신은 그 표현에 신중(慎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전할 말들을 어감(語感)에 따른 적절한 어법(語法)을 사용하여 그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言語)에서 한자어로 보면 ‘말씀 언(言)’ ‘자는 하나 일에 석 자’, 그리고 입구 자로 구성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한 마디 말을 함에 있어 세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는 뜻일 것이다. ‘일언삼사(一言三思)’가 우리가 오늘날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할 명제(命題)인 것 같다.

어감에 따른 전달이란 ‘축축과 축축’, 그리고 ‘척척’의 상태가 다르듯이 그때의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적절한 감성으로 언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심리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전달하는 언어도 반드시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들이 상대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나의 심리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곧 실언(失言)이 되거나 간접이나 친한 내지는 강요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 한마디, 즉 하나의 말의 씨, 즉 말씨를 심으면 앞서 생각해본 것같이 나무의 과일을 생각하고 좋은 땅에 튼실한 씨를 심는 것처럼 상대방의 가슴속과 영혼의 토양위에 감동을 주는 ‘생명의 말씨’를 심어주는 깊은 철학적 사고와 상대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고, 그 심리적 상황에 따라 아름다운 ‘감성의 말씨’를 심어주는 심리학적인 배려와 존중의 언어의 표현에 한층 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을 통한 자아발견(自我發見)도, 공자의 위선자(偽善者)의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의 일깨움도, 석가모니의 보리살타(菩提薩)의 지혜의 깨우침도, 도가(道家)의 무위(無爲)의 사상도, 이 땅에 존재하여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모든 철학도, 그것을 운용해 나가는 심리의 모든 작용들도 지행함(知行合一)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덕(德)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필자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철학이 되고 심리학의 연구가 되도록 하여 ‘생명의 실천’을 이루는데 그 소임(所任)을 다 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끝.

## 경기도 양평 수곡서원



수곡서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에 위치한다.

양평종친회가 코로나로 인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출범을 미루고 있으나 이번에 양평종친회에서 인근 군부대에 마스크 5만장을 기증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양평에는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때 피화당한 사관(史官)과 현감을 지낸 치현(痴軒) 권경유(權景裕, 미상~1498)과 대사헌 권경우(權景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수곡서원(水谷書院)이 유명하다.

권경유는 1485년(성종1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490년에는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495년(연산군1) 외직을 청하여 제천현감으로 근무하면서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사를 펼쳤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고 이숙(吏屬)들은 몹시 두려워 정도였다.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이다.

성종 때 사관(史官)이 되어 김일손(金一孫)과 함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실어 사조 사건이 발생한다. 김종직이 세조 3년 10월 밀양에서 경산(경산)으로 가다가 담계역에서 잠을 잤다. 그날 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 “나는 초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파왕(西楚霸王, 항우)에게 죽음을 당하여 빙강(冰江)에 빠져 잠겨 있다.” 하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잠이 깨어 생각해 보니, 회왕은 남방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東夷, 조선)의 사람이다. 땅이 서로 만나거나 떨어져 있고, 시대가 천여 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징조일까 하고 고민하다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다. 이 글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해 비유하여 세조의 친왕은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권경유가 기록한 사초(私草)에는 “항우(項羽)가 영포(英布)로 하여금 비밀리에 의제(義帝)를 죽이게 하였으나, 천하의 악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종직은 본시 종의에 불타는 사람으로 신의 생각에는 의제(義帝)를 위하여 조문(弔文)을 지은 것이라 생각하고, 마침내 ‘종의가 격렬하여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린

1874년(고종11)에는 지방유림이 주선하여 권경우(權景祐)와 치현(痴軒) 권경유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수곡서원(水谷書院)을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한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剛)이 친필로 수곡서원이란 현판을 써서 걸어 주었다. 양평군 향토유적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평에 가면 권경유와 권경우 두 분의 선조를 배향한 수곡서원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전북 정읍 고암서원



고암서원

고암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모진길 48-17에 위치한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6~1689)과 우암의 수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尚夏, 1641~1721, 시종공파, 27세)를 배향하고 있다. 우암 송시열은 서인 노론의 영수이자 사상적 지주였다. 우암은 1659년 효종이 급서한 후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를 둘러싸고 제1차 예송(禮訟)에서는 승리했으나,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어 자의대비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된 제2차 예송에서는 패배하여 실각한다. 1689년(숙종15) 우암은 세자책봉(世子冊封)이 넓은 아들, 훗날 경종(景宗)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이 지정되어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